

# 죽은 이를 기리는 미사

이 미사는 사망 소식을 들은 뒤에 드릴 수 있으며,  
《로마 미사 경본》이 발행될 때까지 사용합니다(장례 미사는 『장례 예식』(시안)의 전례문 사용).

## 입당송

주님, 그에게 낙원의 문을 열어 주시어  
죽음이 없는 곳, 영원한 기쁨이 넘치는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소서.

또는 죽은 이가 여럿일 때

주님,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. 그들의 영혼을 빛으로 채워 주소서.

## 본기도

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,  
십자가의 신비로 저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 
성자의 파스카 성사로 저희를 하느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 
하느님의 종 (아무)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뽑힌 이들 대열에 들게 하소서.  
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 
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.

또는 죽은 이가 여럿일 때

하느님,  
외아드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하늘 나라로 건너가게 하셨으니  
하느님의 종 (아무)와 (아무)도 이 세상의 죽음을 이기고  
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느님을 뵈오며 영원히 기뻐하게 하소서.  
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 
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.

## 제1독서

부활 시기 아닌 때

<그는 부활을 생각하며 훌륭하고 숭고한 일을 하였다.>

田 마카베오기 하권의 말씀입니다.

12,43-45

**그** 무렵 이스라엘의 임금 유다는 <sup>43</sup> 각 사람에게서 모금을 하여 속죄의 제물을 바쳐 달라고 은 이천 드라크마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다. 그는 부활을 생각하며 그토록 훌륭하고 숭고한 일을 하였다. <sup>44</sup> 그가 전사자들이 부활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면,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쓸모없고 어리석은 일이었을 것이다.

<sup>45</sup> 그러나 경건하게 잠든 이들에게는 훌륭한 상이 마련되어 있다고 내다보았으니, 참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생각이었다. 그러므로 그가 죽은 이들을 위하여 속죄를 한 것은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103(102),8과 10.13-14.15-16.17-18(◎ 37(36),39ㄱ)

- ◎ 의인들의 구원은 주님에게서 오네.
-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,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. 우리를 죄대로 다루지 않으시고, 우리의 잘못대로 갚지 않으시네. ◎
- 아버지가 자식을 가여워하듯,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 가여워하시네. 우리의 뒤흠이를 익히 아시고, 우리가 한낱 티끌임을 기억하시네. ◎
- 인생이란 그 세월 풀과 같아서, 들꽃처럼 그렇게 피어나지만, 바람 한 번 스쳐도 이내 사라져, 그 있던 자리조차 알 길이 없네. ◎
- 주님의 자애는 영원에서 영원까지,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머무르고, 그분의 의로움은 대대손손, 그분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, 그분 규정을 새겨 따르는 이들에게 이르리라. ◎

부활 시기

<주님 안에서 죽은 이들은 행복하다.>

田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.

14,13

**나** 요한은 <sup>13</sup> “‘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이들은 행복하다.’고 기록하여라.” 하고 하늘에서 울려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.

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“그렇다, 그들은 고생 끝에 이제 안식을 누릴 것이다. 그들이 한 일이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이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화답송

시편 130(129),1-2.3-4.5와 6ㄷ.6ㄴ과 7.8(◎ 1 또는 5ㄱㄷ 참조)

- ◎ 깊은 구렁 속에서, 주님, 당신께 부르짖나이다.

또는

◎ 나 주님께 바라네.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.

또는

◎ 알렐루야.

- 깊은 구렁 속에서, 주님, 당신께 부르짖나이다. 주님,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.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. ◎
- 주님,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, 주님,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?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,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. ◎
- 나 주님께 바라네.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,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.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. ◎
-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,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.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,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. ◎
-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,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. ◎

## 제2독서

<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의 진노에서 구원받게 되리라.>

田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.

5,5-11

**형** 제 여러분, <sup>5</sup>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.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. <sup>6</sup> 우리가 아직 나약하던 시절, 그리스도께서는 정해진 때에 불경한 자들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.

<sup>7</sup> 의로운 이를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. 혹시 착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누가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. <sup>8</sup>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,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.

<sup>9</sup>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. <sup>10</sup> 우리가 하느님의 원수였을 때에 그분 아드님의 죽음으로 그분과 화해하게 되었다면,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 그 아드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.

<sup>11</sup>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자랑합니다.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.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복음 환호송

마태 25,34 참조

(◎ 알렐루야.)

○ 주님이 말씀하신다.

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과,

와서,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.

(◎ 알렐루야.)

복음

<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.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.>

✱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
5,1-12L

**그** 때에 <sup>1</sup>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.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.

<sup>2</sup>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. <sup>3</sup> “행복하여라,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!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. <sup>4</sup> 행복하여라, 슬피하는 사람들!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. <sup>5</sup> 행복하여라, 온유한 사람들!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. <sup>6</sup> 행복하여라,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!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.

<sup>7</sup> 행복하여라, 자비로운 사람들!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. <sup>8</sup> 행복하여라,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!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. <sup>9</sup> 행복하여라,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!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. <sup>10</sup> 행복하여라,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!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.

<sup>11</sup>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,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, 너희는 행복하다! <sup>12</sup>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.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◎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예물 기도

주님, 주님의 종 (아무)를 위하여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간절히 비오니

그에게 자비를 베푸시어

이 거룩한 화해의 제사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.

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.

또는 죽은 이가 여럿일 때

주님, 주님의 종들을 위하여 이 제물을 바치오니  
인자로이 굽어보시어  
그리스도 신앙을 고백한 그들이 영원한 상급을 얻게 하소서.  
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.

위령 감사송: 『미사 통상문』, 63-67면 참조.

영성체송

요한 6,37 참조

주님이 말씀하신다.  
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리니  
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으리라.

또는 죽은 이가 여럿일 때

1요한 4,9

하느님은 당신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 
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 주셨네.

영성체 후 기도

주님, 생명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 
주님과 새 계약을 맺은 (아무)가 이 신비의 힘으로 깨끗해져  
그리스도의 평화를 끝없이 누리게 하소서.  
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.

또는 죽은 이가 여럿일 때

주님, 저희가 바친 이 제사로  
세상을 떠난 주님의 종들에게 풍성한 자비를 베푸시어  
일찍이 세례의 은총을 받은 그들이 영원한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소서.  
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.